

〔文書 其三〕

道內尚州四佛山大乘寺諸僧等狀
右謹陳議送情由段矣僧本寺即三韓古刹

英廟朝御筆奉案之地也所重與他自別而寺運不幸去壬戌四月分偶逢回祿之灾法堂僧寮盡入灰爐中伊後僅僅修而佛像新造極爲難使是白加尼

即聞順興浮石寺頽廢之後刻佛畫幀永絕香火已經四十餘年是如乎彼寺則有佛而無奉供之僧矣寺則有僧而無崇奉之佛無論此寺彼寺以僧奉佛自

是當然底道理故己巳二月日通文於右道各寺齊會公議呈訴於順興官家祇承許題而其佛像始乃移安於矣僧本寺新法堂是白遣至于今七八年恪勤奉

供是白加尼所謂尙基爲名僧本是浮浪之人僧形俗行出入本寺者爲屢年而得罪於寺中無緣出去仍爲托名於順興浮石寺與該寺餘存之僧互相設計謂

以矣僧盜
去佛像誣呈議送於 營門至有下殿截之題教亡是如乎蓋此盜佛之說即千萬燧昧也其時順興官家題旨與傳令一張并爲粘駭仰訴以此下覽

則盜之一字不待矣僧之發明而自可脫空是乎矣
題教之下矣等不勝使惶使之還運以去則右莫不惟無意於奉佛反生恒沙之

愆索賂數百餘金此所謂賣佛之賊也矣等一經火劫之後凋殘莫甚錢兩辨出其勢末由從除良設有錢兩而私自與受則烏得免買佛之罪乎緣由茲敢齊聲

仰訴於
旬宣之下爲白去乎 糸商教是後 特下處分使彼無據之僧賊無得逞奸之

地千萬望良只爲
行下向教是事

巡使道主 處分

丙子正月

日釋法問

敎設

性源

敎儉

有欣

善溢

法典

敬洽

戎三

萬成

智英

敎教

奉先

王敏

道自

侑敏

弼淳

完珠

仁幸

小石

守仁

應閏

永文

三省

達成等

取蓮

法寒

法念

法欣

〔文書 其四〕

完議

右完議事段貴大乘社與鄙浮石寺相距百里之外然俱爲一道古伽藍而叢林盛衰

與廢理數常然者也近古以來寺運丕塞大眾浪散之餘金色殿額圯難繕故諸佛幀像移安

於無量壽殿多年矣 貴寺大災後新建之際造像極艱仍謀鄙寺木凋佛像之意

則皆爲佛子同袍之道難拒良誠故不得固留而移安門撓弄彼此妄學也鄙寺方欲修補祖殿之學矣貴寺貳佰伍拾兩助修之義出於盡誠相好事也豈可

無一言澄後之遺蹟乎茲以完議爲去乎日後觀今者愈久愈厚表裏守好之地千萬幸甚

大清光緒二年丙子三月 日

慶尙左道順興浮石寺 靜月有學住持明鶴持殿在文

泰安寺의 大鉢과 銅鐘 二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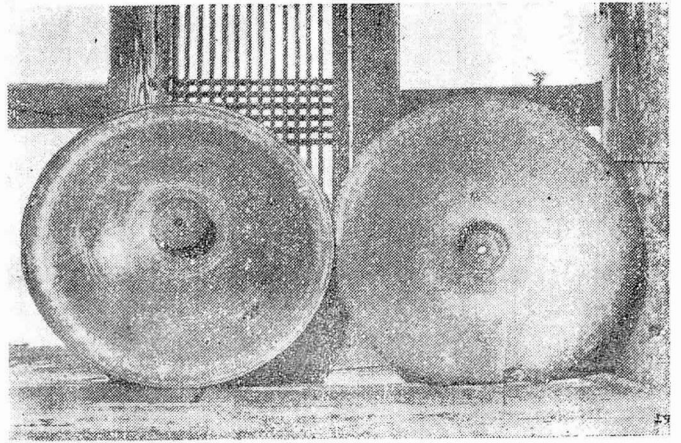
——全南 谷城郡 佛蹟 四——

鄭 永 鎬

全南 谷城郡 桐裏山泰安寺는 一名 大安寺라 하여 新羅時代 九門禪山의 하나로 有名한 寺刹이며 現在도 寂忍禪師照輪淸淨塔을 비롯 數點의 指定 文化財가 保存되어 있어 探訪客이 끊일사이 없다. 筆者는 지난 一月이 初踏에서 倉庫內의 諸遺物을 過眼할 機會를 얻어 大鉢과 禁口、銅鐘 雲板 等 새로운 資料를 調査한 바 있기에 簡單히 紹介하고자 한다.

一、正統十二年銘 大鉢

낫의 鑄造된 한쌍의 大鉢인데 全徑 九四cm나 되는 大作인 點과 兩表



없다. 銘文은 表面周緣에 一行 있는데 內容은 兩側이 같으나 字數와 文句가 多少 相異하다. 이제 判讀해 보면 다음과 같다.

- (一) 桐裏山泰安寺大鉢正統十二年 丁卯八月日造成大功德主孝寧君施主
 安城李氏革末純化主持□□□□□□景泰五年甲戌三月日改造大功德
 主孝寧大君高惠夫人安城夫人李氏□□寺大釋師尙珠大化主□□□□敏
 이며 다른 또한 面에는 間地 中央部에 一行이 또 있다.
- (二) 桐裏山泰安寺大鉢正統十二年 丁卯八月日造成孝寧大君施主安城夫
 人李氏化主……?

景泰五年甲戌三月日改造大功德主孝寧大君高惠夫人安城夫人李氏□□寺大釋

面에 各百餘字의 點
 線銘文이 있어 뚜렷
 한 年代와 製作經緯
 를 알 수 있어서 特
 히 注目되었다. 形
 態는 通型(樂器인
 「침발」인데 兩面中
 心部에 圓形突起가
 있고 가운데 小圓形
 의 空氣孔이 있으며
 周緣까지의 間地에
 는 二處에 二條의
 圓圈이 있다. 大形이
 고 重量이 있어서
 時時로 들지 못하기
 때문에 固定시켜 打
 鐘키 爲한 附着處가
 남아 있으며 內面에
 는 아무런 彫飾이
 是 아 무런 彫飾이

師尙珠大化主□□□□□敏(以上은 周緣部의 銘文)王上殿下壽萬歲
 王妃殿下壽春年世子邸下壽千秋孝寧大君……(中央部의 銘文)

오랫동안 放置되었던 탓으로 淺刻部分의 銘文을 判讀하기는 困難하나
 充分한 時間을 갖는 次機에 完全을 期할 수 있을 것 같다. 銘文에서 알
 수 있듯이 이 大鉢은 孝寧大君의 功德에 依하여 正統十二年(世宗二九年)
 에 造成되었다가 景泰五年(端宗二年)에 改造된 것인데 大君은 圓覺寺
 의 創建을 監督한 일이라든가 平素에 僧徒를 몰아 佛經을 講讀하는 등
 好佛하였으므로 비록 排佛王朝의 王子였으나 이러한 佛具의 功德은 當
 然之事라 하겠다. 여기에서 「大鉢」이란 記名은 新例이며 貳百餘字의 銘
 文은 李朝初期金石文의 一資料로 貴重하다 할 것이다.

二、天順元年銘 銅鐘

泰安寺의 大鐘으로서 通式을 갖추었다. 頂上에는 龍鈕와 甬筒이 完全
 하며 肩上에는 三角立狀蓮華紋帶가 둘러져 있고 鐘肩에는 單葉伏蓮帶가
 陽鑄되었는데 瓣內에는 彫飾이 있다. 上帶는 圓圈內에 梵字를 넣어 數十
 字가 둘러졌으나 모두 同의 같은 形이며 下帶에는 唐草紋이 滿紐되었다.
 撞座는 四處에 配置되었는데 모두 同形으로 圓形連珠紋帶內 中心部에
 八瓣蓮華紋과 間地에 波狀紋이 있으며 四乳廓도 波狀紋이고 九乳頭周緣
 에는 八葉蓮瓣의 裝飾이 있다. 鐘體에는 三行의 銘文이 있어 이 梵鐘의
 造成年代를 알 수 있다. 그 全文은 天順元年三月日大鐘鑄焉破一又萬曆九
 年四月日大鐘改鑄次(金四百餘斤入鑄)이다. 여기서 天順元年(世祖二年)
 이 후 萬曆九年(宣祖一五年)에 改鑄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鐘體의 端雅한
 印象과 鐘肩이나 各部를 볼 때 이 當時까지도 麗代以來의 樣式手法이 繼
 承되어 온 바 이 遺物은 壬亂以前作品의 一例로서 梵鐘研究에 貴重한 資
 料가 될 것이다. 實測値는 (cm)

全高九六·五 上徑四二·下厚五·四
 甬筒高一九 口徑六六 撞座徑一〇·三이다.

三、乾隆十七年銘 銅鐘

李朝時代通式의 中鐘으로서 頂上에는 甬筒과 龍鈕가 있으나 簡素하

며 撞座도 없는 略化된 느낌을 준다. 上下帶가 뚜렷치 않고 다만 上帶部에 圓圈內의 梵字가 配置되었고 鐘腹의 四乳廓內에 九乳頭周緣은 八瓣의 蓮華紋으로 彫飾하였으며 乳廓間에는 圓形頭光이 있는 菩薩立像이 있어 都合 四驅이다. 鐘體에는 三行의 銘文이 있으니 그全文은 乾隆十七年壬申「季春日籌鐘六」十斤新建也이다. 乾隆十七年은 英祖二十八年(一七五二年)으로서 李朝後期인데 前述한 天順元年銘 銅鐘과 優劣이 잘 對照된다 할 것이다. 實測値는 (cm)

全高 五三 上徑二九
甬筒高八·五 口徑四一

四、禁口와 雲板

禁口는 徑八一·七cm로 大作에 屬한다 할 것이다. 表面 重圈外側四處에 蓮華紋圓帶內의 梵字를 配置하고 그 사이마다 八葉의 小蓮瓣彫飾이 있다. 側面에는 「乾隆三十五年庚寅六月日興陽楞伽寺金器鑄成」의 銘文이 있고 連하여 點線으로 「桐裏山泰安寺大鐘」이라 있으니 이것은 곧 楞伽寺의 禁口가 泰安寺로 移管된 후 點線으로 陰刻한 것이다. 雲板은 通式의 裝飾的인 形態인데 表面周緣一行에 「道光十一年辛卯七月日泰安寺雲板造成也」란 銘文과 梵字가 四處에 陽刻되었다. 道光十一年은 純祖三十一年(一八三一年)에 該當된다. 實測値(cm)는 高三七·三 徑二七이다.

資 料

瀋陽出土의 至正四年銘 金鼓

坪 井 良 平

最近에 高麗靑銅鼓(盤子 飯子)가 瀋陽市郊外에서 發掘된 記事를 보았다. 高麗文物의 滿州方面에의 進出을 알 수 있는 興味있는 事實로 생각되는 바 그 大要는 아래와 같다.

一九六三年十一月 瀋陽市東郊 渾河南岸의 石廟子村에서 一括의 元代 銅器가 出現하였다. 이들은 村東方 道路의 排水溝를 改築中 地表下 八cm에서 出土되었는바 總數三十二件으로서 모두 廟宇에서 使用되던 法

器였다. 그중이 金鼓는 靑銅鑄造로서 面徑三三·五cm 側高九cm. 扁平中空인 바 一面外區에는 纏技牡丹, 內區에는 飛舞하는 雙鳳이 새겨졌으며 他一面外區에는 卷草 內區에는 雙龍拾珠가 새겨졌다. 또 各面中房에는 十二, 八, 一의 珠文이 있으며 側面에는 中心의 合縫線上에 二十cm의 距離를 두고 三個의 半圓形縣鈕가 있는데 그 高는 一·三cm이다. 側面下部에는 切口가 있어 長十七cm, 幅五·二cm 側面에 보이는 三行의 刻銘은 다음과 같다.

至正四年四月初八日勸善道人張敬道明發願施納(?)金鼓一部 定戎寨善現寺(以上一行)

同願施主朴終甫金雲山(以上一行)

刻標造成匠 洪廣大(以上一行)

定戎寨善現寺는 元, 明志에 記載가 없다. 瀋陽城隍元至正十二年重修碑中에 城西에 常新寨이 있다는 記載가 있고 附近地名에도 李石寨 國公寨 班家寨 등의 이름이 남아 있다. 定戎寨善現寺는 아마도 附近에 있었을 것이나 元의 兵火로 亡하고 그 때 이 銅器도 埋沒되었을 것이다.

元代의 瀋陽에는 漢族以外에 朝鮮 女眞 蒙古族이 있었던 사실은 元史에 詳細하므로 銘文中에 보이는 「朴」「金」「洪」 등은 朝鮮人의 이름일 것이다. 發表原文에는 簡字가 많아 解讀이 充分하지 못한 點도 있으나 우선 高麗飯子의 新發見의 事實만이라도 通知하는 바이다. (干崇源·鄭明「沈陽市郊出土一批元代銅器」「文物」一九六六年四號)

[註] 이一文은 七月二十八日付 坪井氏의 鄭永鎬幹事와 書信內容을 抄譯한 것인바 이 金鼓樣式은 高麗通式의 片面型이 아니고 兩面型(日本의 鐃口)이었던 듯하다. 이같은 高麗遺品은 國內에는 없고 日本에 唯一點(至治二年銘海州藥師寺禁口—京都智恩寺所藏)이 傳하고 있을 뿐이다.

考古美術 卍一三

◎ 文化財委 第一分委(五次)

八月 六日 開催. 出席委員 金庠基 李弘植 金斗鍾 金允基 襄源 黃壽永. 討議